Good

"재가불자 중심, 사람 냄새 나는 신문"

"비판 정신과 온라인 속보 강화해야"

Bad

'현대불교신문'하면 신행 · 포교 중심, 폭넓은 인터뷰 기사가 강점이라는 데 필진들이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이들은 인터뷰이(Interviewee)를 더욱 폭넓게 섭외해야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최선일 위원

김호석 화백

박동춘 소장

명법 스님

도연 스님

창간23주년, 역대 필진들이 말하는 '현대불교'

역사만큼 현재를 잘 대변하는 것은 없을 터. 현대불교의 역사와 함께한 역대 필진들은 그만큼 현대불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들은 현대불교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창간23주년을 맞아 역대 필진들을 통해 현대불교신문이 나아가야할 길을 짚어봤다.

신성민 · 박아름 기자

"비판적 시각 아직도 부족하다"

김호석 화백

"현대불교신문은 색이 없습니다.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는 점은 장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뻔히 잘못된 것'에 대해 적당히 넘어가려해선 안되겠지요. 비판적 시각을 갖추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현실과 시대, 역사가 있습니다."

2015년 '화폭 속의 선지식'을 연재한 김호석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에 대해 날카롭고도 단호한 평가를 남겼다.

김 화백은 "논조가 애매모호하면 도태될 것이다. '이것은 민감하니 기사화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대해 보도 ·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스스로 안위만 생각한다면 역사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없다"면서 "현대불교신문이 불교 내 온 목소리를 담아 보수와 진보가 논쟁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김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의 연재에 대해서는 호평했다. 대중성이 없더라도 전문적이고 특화된 내용의 연재와 필자는 과감히 싣는다는 평가다.

"학계에서 널리 인정받지 못하는 주장까지 수용하며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필자 개인의 자유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화백은 현대불교신문이 23주년을 기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기를 당부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강화 필요"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현대불교는 한 종단에 국한되기보다 다양한 종단과 신행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낸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인간애를 실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지 창간 때부터 함께 하며, 2016년 '억불시대, 불교를 만난 유학자'를 연재하기도 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은 현대불교신문의 다양한 신행 · 수행 이야기에 주목했다. 종단을 초월해 불교 본연의 따뜻함과 진중함을 전달하는데 집중하는 매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박 소장은 "처음부터 성장과정을 지켜봤기에 남다른 애정이 있다. 지면의 내용이 풍부해지고 인터넷 신문의 구성도 매우 혁신됐다"면서 "특히 지면에서 행간의 여유로움 덕분에 가독력이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박 소장은 '문화 콘텐츠 강화'를 주문하기도 했다. 미래 사회의 관심과 방향은 이미 '문화시대'로 진입했으며, 이에 발맞춰 가는 참신한 기사가 발굴됐으면 한다는 것.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지면 할애가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불교문화는 역사성, 다양성, 친근성 등 다양한 면에서 이미 경쟁력이 검증됐습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문화를 잘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현대불교신문이 전통불교문화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 단계를 적극적으로 돕길 바랍니다."

"불교미디어계 퍼스트 무버 역할"

도연 스님

현재 '도연 스님의 청춘사이다'를 연재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도연 스님이 "현대불교는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불교미디어계 퍼스트 무버(First Mover)이자 패스트 팔로워(Fast Follower)"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도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이 항상 변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처럼 제가 연재하고 있어서 그런지 현대불교신문의 콘텐츠는 대부분 좋습니다. 기사가 식상하지 않고, 특히 '만다라' 코너가 매우 훌륭합니다. 제목도 전반적으로 센스 있게 잘 짓는 것 같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웃음)"

스님은 특히 일반사회 및 정치적인 기사와 관련한 의견도 냈다. "진보와 보수, 어느 쪽에도 치우지지 않고 모두 아우르는 것 같다"는 스님은 앞으로도 영향력 있는 기사를 많이 써줄 것을 당부했다.

도연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에 대해 애정 어린 비판도 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책 소개 코너가 미비하다는 점이다. 스님은 "타 교계언론 홈페이지는 메인에 책 소개 코너가 배치돼 있는데, 현대불교는 없다. 출판 관련 기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가불자 신행 · 수행 전달 돋보여"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스님

"현대불교신문을 떠올리면 '재가불자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단, 스님들의 이야기보다는 불자들의 신행 · 수행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2013년 '불교와 미학'을 연재하고, 본지 필진으로 활동 중인 명법 스님은 "현대불교만이 가지 자유롭고 활동적인 느낌이 있다"면서 "사실 일선 사찰이나 재가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들의 목소리와 삶을 자주 다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명법 스님은 현대불교신문의 인터뷰 기사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다. 기자들이 인터뷰이(interviewee)의 의도를 분석해 글로 전하는 능력이 탁월하고, 이에 따라 신뢰도도 높아진다는 평가다.

그러면서도 스님은 "유명인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으면 좋을 것 같다. 저변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는다면 더욱 균형감 갖춘 언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포교지'로서 현대불교신문의 역할에 대해 주문했다. 스님은 "신행 · 포교지로서 현대불교신문에 대한 기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불교의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읽을거리 풍부한것 최대 강점"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전직 필진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읽을거리가 많아서 좋습니다. 특히 현대불교신문은 '사람'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람 내음'이 난다고 할까요. 그래서 열독하게 됩니다."

지난해 '불모열전'을 연재한 최선일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위원은 본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불교미술을 다루는 연구자인 만큼 평소 '간사이 아줌마의 일본사찰 엿보기' '윤범모 교수의 불도 기행' 연재를 즐겨본다는 그는 다양한 읽을거리가 현대불교의 강점이라고 했다.

"일본인을 섭외해서 장기 연재를 하는 기획력에 놀랐습니다. 또한 도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담긴 와이드 인터뷰를 통해서는 스스로 감탄하며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현대불교에게 아쉬운 점은 '신속한 보도 전달력'을 꼽았다. "주간신문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인터넷 판을 별도로 운영하는 만큼 신속한 보도가 조금 더 잘 이뤄졌으면 한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현대불교에 바라는 점은 '다름'과 '다양성'입니다. 어느 한 편이 아닌 중도적 견지에서 조화롭게 불교계 사안들을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을 잘 지키면 현대불교신문은 더욱 발전할 것이라 믿습니다."

필진들은 현대불교신문의 '비판성'과 '속보성'에 대한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언론으로서 '잘못된 것'에 대해 침묵하지 않는 본연의 기능을 지키고, 주간지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속보를 통해 온라인 기사의 활성화를 이끌어야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문이다.

